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공보담당관 자장검사 배용원

전화 031-470-4493

보 도 자 료 2019. 1. 30.(수)

자료문의 : 형사제1부장실
전화번호 : 031-470-4499
주책임자 : 부장검사 강종현

제목 **유령법인 대표통장 대량유통 다단계조직 수사결과**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종현)는, 2018. 10.부터 3개월동안 경찰에서 송치된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하여,
 -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대표 통장을 대량으로 개설·유통한 조직』을 적발,
 - 조직원 총 25명을 입건하여, 그중 총책 등 11명을 구속기소,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하였음
- 이번에 적발한 대표통장 유통조직은
 - 2016. 10.부터 2018. 10.까지 약 2년간 조직원수를 늘려 자연스럽게 **피라미드식 다단계구조**를 갖추어 가면서, 유령회사 총 41개를 설립하고, 각 회사 명의로 대표 통장 합계 173개를 개설·유통하였으며,
 - 대표통장 판매 대가로 총 2억 7,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올리고, 피라미드 조직에서 최하위조직원이 통장을 만들면 상위조직원들이 각자 위치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분배함
- ※ 조직원들 대부분이 20대 중반으로 친구 사이가 많았는데, 실직 등으로 직업이 없거나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변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함
- 위와 같은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피의자들 소유의 자동차 등(합계 약 4,480만 원)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하였고, 향후 규명 중인 재산에 대하여도 추가로 추징보전 조치 등 **범죄수익을 지속적으로 환수**
- 대표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 검찰은 앞으로도 대표통장 유통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임

1 피고인 등

- 대표통장 유통조직 총책(2명) : 1명 구속 기소, 1명 지명수배
 - 유통조직 前 총책 A(28세) : 구속 기소
 - 유통조직 現 총책 B(25세) : 지명수배
- 대표통장 유통조직 관리책(5명) : 3명 구속 기소, 2명 지명수배
 - 관리책 C(25세), D(25세), E(24세) : 각 구속 기소
 - 관리책 F(25세), G(24세) : 각 지명수배
- 유령회사 설립 및 통장 개설자(18명) : 7명 구속 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 ※ 별첨1 ‘피고인 및 피의자별 처분내역’ 및 별첨2 ‘유령법인 대표통장 유통조직도’ 참조

2 죄명 및 범죄수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대표통장 개설 목적으로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 설립을 신청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
- 업무방해
 - 대표통장 개설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방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후 계좌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양도

3 수사배경 및 경과

- ‘18. 10. 경찰에서 대표통장 개설자 1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건이 불구속 송치되어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해당 피의자의 추가범행이 의심되어 ‘18. 11. H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 주거지에서 법인통장 9개, OTP, 법인 개설서류, 대포폰 등을 발견하여 긴급체포한 후 구속
- ‘18. 11. 해당 피의자가 설립한 유령회사 감사로 등재된 대표통장 유통조직 관리책 C와의 관계를 추궁하여 C의 범죄사실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력을 확인하고, C 체포(체포영장) 및 주거지₂ 압수수색 후 구속

- '18. 12. C 구속 수사 중 다른 관리책 D의 범죄사실 확인, D 주거지 압수수색 및 체포하여 구속하고, C, D에 대한 조사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조직 現 총책 B가 작성한 유령법인 명단 텍스트 파일을 발견하여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됨
- 위 텍스트 파일에서 확인된 법인 대표 인적사항 파악, 그들 명의로 설립된 법인 내역 확인, 법인 대표자들 및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前 총책 A, 現 총책 B, 관리책 2명 등 주요 인물 인적사항 특정
- '18. 12. ~ '19. 1. 유령회사 설립 및 통장 개설자 I, J, 관리책 E, 유령회사 설립 및 통장 개설자 L, 前 총책 A, 유령회사 설립 및 통장 개설자 M, N을 순차 검거하여 구속 기소하고, 유령회사 설립 및 통장 개설자 등 11명 불구속 기소

4 수사 결과

- **대포통장개설 및 유통 목적으로 외형뿐인 '유령회사' 설립**
 - 자본금 납입이 필요 없는 유한회사를 주로 설립하였으나, 유령회사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함
 -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설립에 필요한 주금(통상 1,000만 원)은 상위조직원이 하위조직원에게 대여하고 주금납입만 증명한 다음 즉시 인출하여 변제
 - 법인 사무실은 보증금 없이 월세 약 15만 원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사무실(소사무실 또는 소호사무실)을 3개월~6개월의 단기로 임차
- ※ 소호(SOHO) 사무실 :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자로, 1개의 사무실을 칸막이로 구획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임차하는 사무실을 말함
- **'피라미드식 다단계 점조직'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
 - 상위조직원은 '관리책'으로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할 하위조직원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수집 및 대금 지급 등 하위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 하위조직원은 '유령회사 설립 및 통장 개설자'로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
 - 상위조직원은 하위조직원에게 법인설립방법, 통장개설방법 등을 전수하고 하위조직원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오면 순차로 상위조직원, 그 위의 상위조직원을 거쳐 총책이 통장구매조직(일명 '중국사장')에게 양도

- 하위조직원이 대포통장을 만들면 그 대금에서 하위조직원, 상위조직원 및 총책에 이르기까지 각각 일정 금액씩 챙겨가는 구조로서, 하위조직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자신의 수입이 많아지므로 자연스럽게 조직원 수 증가
- 또한 조직원이 경찰에 포착되면 상위조직원에게 미리 교육받은대로 '성명불상 대출업자가 현금카드등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다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통장을 만들고 현금카드를 보내주게 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한편, 관련 통장 등 증거를 전부 폐기한 후 자신은 2선으로 물러나고 하위조직원을 포섭하여 범행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수사기관을 따돌려 옴

● 대포통장 유통으로 손쉽게 금전적 이익 취득

- 평균적으로, 조직원 1명당 법인 2개 설립, 법인 1개당 계좌 5~6개를 개설하여 조직 단계 별로 수익을 나누어 가짐(최하위조직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통장 1개당 매월 약 30만 원씩, 상위조직원들은 5~20만원씩 지급받음)
- 현재까지 확인된 유령회사는 총 41개, 대포통장은 총 173개로, 조직원들이 대포통장 판매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합계 2억 7,000만 원으로 추산

● 대부분 미취업 청년들이 범행 가담

- 조직원 대부분은 실직 등으로 무직이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던 20대중반의 청년들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친구나 지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범행 가담

● 대포통장들은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사이트 등 범행에 이용

- 본건 대포통장들은 통장구매조직(일명 '중국사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사범이나 불법스포츠도박업자들에게 넘어가 그들의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본건 대포통장 중 40여개는 이미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관련으로 송치되거나 수사 중에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진행할 예정

●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할 예정

- 범죄수익금 추징을 위해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극 의율하여 기소
- 관리책 C, E 소유의 자동차(C 자동차: 시가 1,480만 원, D 자동차: 시가 3,000만 원) 확인하여 추징보전 청구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의 재산 또한 계속하여 추적 중

5 향후 계획

- 대포통장 유통조직 現 총책 B, 관리책 F, G 끝까지 추적 검거 및 관련 회사들의 유령법인 여부 확인 등 조직의 전체적 규모 및 범행 전모 규명 예정
- 향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대포통장 유통 근절을 위해 관련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

※ 압수물 사진 별첨 ☑

【 별첨 1 】

피고인 및 피의자별 처분내역

구분	피고인	공소사실 또는 (확인된) 피의사실	처분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前 총책)	유령법인 4개 설립, 통장 25개 양도	구속 기소
	B(現 총책)	유령법인 8개 이상 설립, 통장 48개 이상 양도	지명수배
대포통장 유통조직 관리책	C	유령법인 10개 설립, 통장 50개 양도	구속 기소
	D	유령법인 4개 설립, 통장 18개 양도	구속 기소
	E	유령법인 5개 설립, 통장 25개 양도	구속 기소
	F	유령법인 8개 이상 설립, 대포통장 32개 이상 양도	지명수배
	G	유령법인 5개 이상 설립, 대포통장 10개 이상 양도	지명수배
유령회사 설립 및 통장 개설자	H	유령법인 2개 설립, 대포통장 12개 양도	구속 기소
	I	유령법인 2개 설립, 대포통장 8개 양도	구속 기소
	J	유령법인 2개 설립, 대포통장 12개 양도	구속 기소
	K	유령법인 3개 설립, 대포통장 12개 양도	구속 기소
	L	유령법인 2개 설립, 대포통장 15개 양도	구속 기소
	M	유령법인 2개 설립, 대포통장 5개 양도	구속 기소
	N	유령법인 2개 설립, 대포통장 13개 양도	구속 기소
	그 외 11명	각 유령법인 1개 내지 3개 설립, 통장 1개 내지 12개 양도	불구속 기소

【 별첨 2 】

유령법인 대표통장 유통조직도



【 별첨 3 】

압수물 사진

